

조선어와 영어의 맞물린문장성분구분에 대한 대비

주 광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힘들고 까다로와도 문법공부를 잘하여야 외국어를 능숙하게 소유할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맞물린문장성분구분에 대한 조선어와 영어의 대비분석은 학생들에게 해당 문장에 대한 문법지식을 정확히 습득시키고 그들의 실천능력을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이 글에서는 조선어와 영어의 맞물린문장성분구분에 대하여 대비분석하려고 한다.

문장론이 연구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문장성분이 주어, 술어를 갖춘 문장에만 존재하는 문장론적단위로 인정되다가 결국은 주어 또는 술어가 없는 문장에도 적용되는 문장론적단위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후 《외판성분》을 설정하면서 문장구성에서의 문장성분의 지위와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단어문장》, 《명명문》과 같은 문장에는 문장성분이 없는것으로 되어오던것이 지금은 이러한 문장도 《진술어》라는 독립성분에 의하여 성립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문장성분은 모든 문장에 필수적인 구성단위로 되었다.

결과적으로 언어에서 문장성분이란 진술성을 구현하는데서의 기능과 역할에 의하여 구획된 의미-기능적단위이며 문장론적관계속에서 제약되어있는 구조-문법적단위라는것이 확정되었다.

문장성분은 전일적인 문장을 단 한번 구획한 문장구성단위로서 조선어와 영어문법에서는 문장성분을 크게 맞물린성분과 외판성분으로 구분하고 맞물린 성분으로 5개의 성분 즉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로 보고있다. 그리고 그 문장론적지위와 역할에 따라 다시 주성분과 부성분으로 구분하였다.

조선어와 영어의 맞물린성분구분은 무엇보다먼저 주성분구분에서 대비분석할수 있다.

조선어와 영어의 주성분구분에 대하여 보면 조선어문장에서는 술어만이 주성분으로 되지만 영어문장에서는 주어와 술어가 함께 주성분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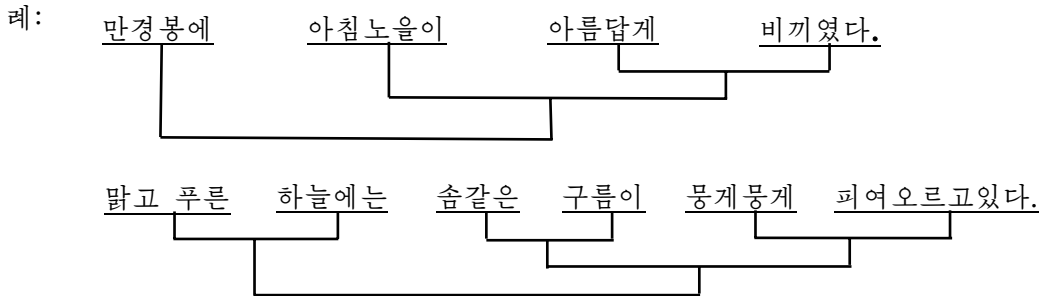
조선어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어와 술어를 함께 주성분으로 보아오다가 문장성분으로서의 술어의 지위를 구조-문법적립장에서 출발하여 관찰한 결과 주어보다 술어가 우위에 있고 술어가 주어에 대한 주도어라는 근거가 밝혀지면서 술어만이 주성분으로 된다고 하였다.

조선어의 술어가 주어에 대한 주도어로 되는 근거는 여러가지이지만 기본은 술어가 문장의 기본표식인 진술성을 형식화하는 요소들이 집중된 단위이고 문장의 진술을 끝맺어주는 핵심적단위라는것과 조선어에서는 술어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은 있어도 주어로만 이루어지는 문장은 있을수 없다는것, 술어가 역양의 요소와 함께 문장의 양태적류형, 문장의 한계와 성격을 분간하여주는 결정적요소의 하나로 된다는데 있다.

조선어문장에서 술어만이 주성분으로 되는것은 조선어문장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놓고보면 알수 있다.

조선어에서는 술어를 구조적중심으로 하고 그와 상관되는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맞물려가면서 문장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조선어문장에서 술어가 문장의 구조적핵심을 이루며 문장의 조직자로 되는 근거가 있다.

조선어문장에서는 술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놓이면서 그것이 축이 되어 다른 모든 문장성분들을 문법적으로 통솔하여 문장을 형식화하여준다. 다시말하여 조선어문장에서는 문장구성에서 단어결합의 단계적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술어를 출발점으로 하여 거슬러 올라가면서 1차적, 2차적 또는 그 이상으로 성분들의 상관관계가 맺어진다.



우의 실례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어문장에서 성분들의 문법적연결은 술어를 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술어의 이 문법적특성을 바로 술어의 구조-형태적표식이라고 한다.

조선어의 술어에는 진술성이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진술성은 진술내용이 현실과 맺는 연계의 성격으로서 문장에 고유한 기본표식이다.

조선어의 술어에는 존경, 시간, 말차림 등이 표현되며 양태성, 전달의 어조가 동반되어 문장이 형식적으로 완결된다. 술어가 진술성을 나타내는 담당자로서 문장을 문장으로 형식화하여주는 이 문법적특성을 바로 술어의 기능적표식이라고 한다.

조선어문장구조에서 술어가 주어를 포함한 모든 성분들을 지배하면서 문장을 문법적으로 끝맺어주며 다른 모든 성분들을 문법적으로 통솔한다는것은 조선어문장의 어순에서 술어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고 문장의 끝자리에 놓이며 다른 성분들의 어순을 변화시켜도 해당 문장의 기본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 례:1) 어제 나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2)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3) 도서관에서 어제 나는 책을 읽었다.
 4) 책을 어제 나는 도서관에서 읽었다.

조선어문장에서는 앞단어가 뒤단어에 문법적으로 매여있으면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관계에 있으며 술어가 구조적으로 문장성분을 구획지어주는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조선어문장에서는 술어만이 문장의 주성분으로서 문장의 구조적핵심, 문장의 조직자로 되며 이것은 조선어문장구조의 특성에 대한 반영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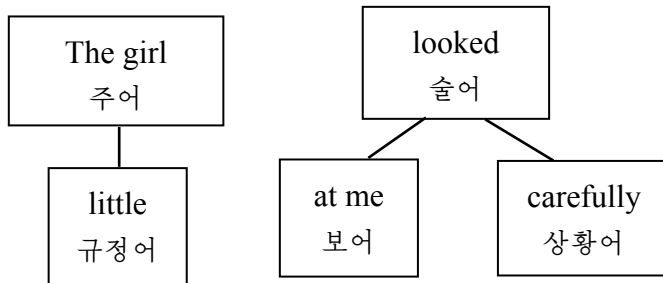
그러나 영어에서는 조선어와는 달리 문장의 주성분을 주어와 술어를 함께 본다.

론리-의미적표식과 함께 구조-문법적표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장성분을 구분하여보면 영어에서는 조선어와 달리 주어와 술어가 밀착되어 문장의 주성분, 기본골격을

이루면서 문장을 형식화한다. 다시말하여 영어에서는 문장이 조선어와는 달리 주어와 술어가 함께 구조적핵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영어에서는 문장의 술어적의미가 문장의 주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칭형동사에 의해 표현된다. 영어에서 진술성의 표현은 동사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주어는 술어의 인칭을, 술어는 주어의 인칭을 나타낸다. 즉 영어에서는 주어와 술어의 상관관계에서 호상 의존제약하므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어가 술어와 함께 문장구성에 참가한다.

례: The little girl looked at me carefully.



조선어와 영어의 주성분 즉 구조적핵심이 서로 다른것은 조선어는 격형태가 발달된 잘 짜인 언어이지만 영어는 그렇지 못하며 영어에 주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술어로 쓰이는 동사의 인칭변화형태가 존재하면서 주어와 밀착관계에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두 언어의 주성분구분에 대한 대비는 론리-의미적측면과 구조-문법적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다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조선어와 영어의 맞물린성분구분은 다음으로 부성분구분에서 대비분석할수 있다.

조선어와 영어의 맞물린문장성분의 부성분구분에 대한 대비에서도 일정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보어, 상황어의 한계성문제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데로부터 두 언어의 성분구분에서 일정한 난점이 생긴것과 관련된다.

조선어와 영어에서는 보어, 상황어가 문장성분가운데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선어문장에서는 그 표현이 풍부하고 다양한 특성이 보어, 상황어의 표현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실례로 조선어문장 《꽃에 물을 주다.》에서 《꽃에》에는 물을 주는 간접적대상이라는 뜻과 함께 물을 주는 장소라는 뜻이 교차되어있어 《꽃에》를 일부는 보어로, 일부는 상황어로 보아왔다. 그밖에도 시간, 장소, 원인, 조건 등을 비롯하여 많은 경우에 대상성과 수식성이 교차되어 표현됨으로써 그 분석에서는 복잡성이 제기되고 일부는 보어를 상황어로 또 일부는 상황어를 보어로 각이하게 보는 현상이 나타났다.

분석해보면 조선어에서는 초기에 양상, 원인, 조건, 시간, 장소, 목적, 양보 등 문법적 뜻이 명백한것은 그것이 표현되는 단어에 관계없이 상황어로 보아오다가 의미-기능적측면보다 단어형태를 중요시하는 구조-문법적전지에서 의미-기능적특성에는 관계없이 대상성을 나타내는것은 모두 보어로 보고 대상성이 없이 순수 수식성을 나타내는것은 상황어로 보아왔다. 이러한 혼동은 두 언어성분구분에 대한 대비에서 난점을 조성한다.

영어에서 보어는 우선 형태론적구성에 따라 전치사있는 보어와 전치사없는 보어로 나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전치사있는 보어를 상황어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으므로 일부 학자들이 상황어로 보고있는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보어의 본질적측면을 무시하고 형태—구조적특성만을 절대시한것으로서 정확한 구분으로 볼수 없다.

보어의 중요한 징표는 대상성을 나타내는데 있다. 영어문장 《I gave the book to him.》에서 《the book》는 전치사없는 보어이며 《to him》은 상황어가 아니라 전치사있는 보어이다. 순수 론리—의미적견지에서 분석하는 학자들은 《to him》을 상황어로 보는데 문장성분은 의미론적표식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구조—문법적표식과 론리—의미론적표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영어에서 보어는 또한 직접보어와 간접보어로 나눈다.

의미론적으로 직접보어는 동사로 표현된 행동(또는 상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고 행동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이다. 간접보어는 행동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행동이 일정한 정도로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성분이다. 구조—문법적으로 직접보어와 간접보어는 언제나 나란히 놓이며 앞에 간접보어가 오고 다음에 직접보어가 온다. 간접보어와 직접보어의 자리가 바뀌면 간접보어앞에 전치사가 온다.

최근에 영어문법에서는 영어문장성분을 지난 시기와는 달리 주어, 술어, 직접보어, 간접보어, 전치사보어, 주어술사, 보어술사, 위치/목적술사, 정황부속어, 련어부속어, 련결부속어로 구분해보는 견해도 나오고있다.

영어문법(English Grammar, Angela Downing and Philip Locke, 2016)에서는 그 실례를 다음과 같이 주었다.

1. Subject (주어)
 Jupiter is the largest planet.
2. Predicator (술어)
 The election campaign has ended.
3. Direct Object (직접보어)
 Ted has bought a new motorbike.
4. Indirect Object (간접보어)
 They sent their friends postcards.
5. Prepositional Object (전치사보어)
 You must allow for price increases.
6. Subject Complement (주어술사)
 He is believed to make any changes.
7. Object Complement (보어술사)
 We consider the situation alarming.
8. Locative/Goal Complement (위치/목적술사)
 We flew to Moscow.
9. Circumstantial Adjunct (정황부속어)
 The news reached us on Tuesday.
10. Stance Adjunct (련어부속어)
 Unfortunately, we could not reach Moscow in time.

11. Connective Adjunct (연결부속어)

However, other friends were present.

우의 성분구분을 보면 지난 시기의 성분구분과는 달리 지금까지 영어에서 명백히 상황어로 혹은 보어로 보아오던것을 무시하고있는데 바로 이것은 보어와 상황어의 한계성 문제를 비롯하여 성분을 구분하는데서의 견해가 일치하지 못한 사정과 관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보어, 상황어의 한계부터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보어, 상황어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보어와 상황어의 문법적본질과 특성을 옳게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선을 긋는것이다.

보어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대상을 나타낸다는데 그 문법적본질이 있으며 상황어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나타낸다는데 그 문법적본질이 있다. 이러한 문법적본질로부터 보어와 상황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엄격히 구별된다.

우선 의미-기능적측면에서 보어와 상황어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보어는 술어에서 표현된 행동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옮겨지는 대상을 나타내는데 그 특성이 있다면 상황어는 행동이 옮겨지는 대상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행동이 이루어지는 양상과 정도 등 수식성을 나타낸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또한 보어와 상황어는 구조-문법적연계의 성격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보어는 행동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옮겨지는것을 전제로 하는 타동사나 자동사로 표현된 동사술어와 연계를 맺는다면 상황어는 행동이 간접적으로 옮겨지는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동사로 표현된 동사술어와 연계를 맺는다. 다시말하여 보어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행동이 다른 대상에 옮겨지는 동사와 문법적연계를 맺는다면 상황어는 다른 대상에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자동사와만 문법적연계를 맺는다.

조선어부성분의 형태표식에서도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보어는 주격토, 호격토를 제외한 모든 격형태를 취할수 있다. 따라서 보어의 형태표식은 비교적 폭이 넓고 다양하다. 그러나 상황어는 형태표식이 필수적이 아니며 그것도 제한된 범위의 형태표식을 가진다. 보어와 상황어의 이와 같은 문법적본질과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대상성의 뜻이 상대적으로 명백한것은 보어로, 수식성의 뜻이 상대적으로 명백한것은 상황어로 처리해야 한다.

보조적단어가 결합되는 경우 보어와 상황어의 한계성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제기되므로 문리-의미적측면과 구조-문법적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구분해야 한다.

조선어와 영어의 부성분에서 규정어가 문장성분인가 아니면 구의 성분인가 하는 문제도 논의되고있는것만큼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례: 그들은 손에 붉은 기발을 흔들면서 광장으로 행진했다.

They marched for the square waving red flags in their hands.

우의 실례에서 조선어의 《붉은 기발》이나 영어의 《red flag》에서와 같이 규정어는 어디까지나 구의 성분으로서 2차구획시에 나타나는 문장성분이다. 2차구획시에 문장안에 있는 단어결합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분석하므로 규정어는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와 동등한 등급의 문장성분이 아니라 구의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어와 영어문장성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비분석하자면 우선 조선어와 영어의 문장구조의 구체적특성과 차이점을 대비적으로 잘 보아야 한다.

조선어와 영어는 다 자기 고유의 특성을 가진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언어이다. 조선어문장은 단어들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가면서 맞물리는 잘 짜인 구조로 되어있지만 영어는 문장구조가 이와는 달리 어순에 따르는 변화가 많은 등 격형태가 발달되지 못하여 매우 무질서한 구조로 되어있다는것에 주목을 돌려야 하며 문장성분을 구획짓는데서 나서는 보어와 상황어의 한계성문제와 같은 점들에 주목을 돌려야 한다.

조선어와 영어문장성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비분석하자면 또한 성분구분을 할 때 여러가지 각도에서 보는것이 필요하다.

문장에는 논리적계기, 문법적계기, 심리적계기와 같은 여러가지 계기들이 반영되므로 성분분석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것과 다른 문장론적단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논리-의미적 및 구조-문법적상관성과 그의 문장론적기능 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우리는 조선어와 영어의 문장성분구분에 대한 대비분석을 심화시키고 그 성과를 외국어교육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문장성분구분, 주성분, 부성분